

“생태계 파괴...온천개발 중단해야”

실상사, 4월 11일 지리산 온천개발 반대 입장 밝혀

지리산담 건설과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리산 실상사 주변지역이 이번에는 온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모 온천개발업자는 지난 3월 말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사하촌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명목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했다. 실상사와 마을주민들은 규정에 어긋난 대형관정(온천개발용, 깊이 1km, 굴착지름 200mm)을 시추함을 보고 굴착공사가 지하수 관정 굴착이 아닌 온천개발을 위한 공사인 것으로 확인해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했다.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산내면 주민 대책위와 실상사, 지리산 종교연대, 한생명,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 20여 회원들도 4월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청정지역의 물을 고갈시키는 온천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산내면 주민들은 온천 개발이 진행

실상사 500m앞에 온천 관정 시추 마을 주민 힘 모아 사업 저지 남원시는 “온천자원만 있다면...”

되면 중기마을 등 주변 5개 마을이 식수와 같은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원백일리와 백일리, 중기, 작은마을, 하향 등 주변 5개 마을은 매년 급수제한을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수도 모자라는 곳에 하루 3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쓰는 온천이 생긴다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지반침하와 만수천 오염 등이 불보듯 뻔하다”고



4월 11일 남원시청에서 시위 중인 실상사·산내면 주민들

말했다. 이들은 또 “다양한 야생동물의 터전인 지리산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발전은 뒤로하고 경제성에 얽매인 개발에만 치우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온천개발업자는 남원시청에 채차 굴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자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천협회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고등법원은 2009년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을 두고 “자연환경보전구역에 대한 수질환경영양방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상주시장의 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시행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려 혜심 진각국사 다례재 봉행

고려 혜심 진각 국사(1178~1234) 다례재가 봉행됐다. ‘생활불교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회장 대현)는 4월 15일 진각 국사 탄생지인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정다운 스님, 대현 스님, 정암 스님(대한불교교각종 총무원장), 조백한 노인회장, 박창수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국사 입적 제768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1부 꽃피는 절(주지 목안)의 육생공양에 이어 영산재 및 다례제(미타회원), 추모법요식과 점심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정다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각 국사는 스님들의 수행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禪門染頌)을 만들어 후학들에게 깨침의 길잡이를 제공했다”며 “인류는 각성의 시대로 이르는 큰스님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불교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는 이날 추모제에 이어 향후 진각국사의 지



서인(선문염송)에 대한 연구단체 조직 및 정기적 학술세미나, 선양사업 방편을 밝혔다. 또 봉사부장에 모택 스님(해원정사 주지), 홍보부장에 경담 스님(천문선원 주지)을 임명하고, 광주전남지역 30여명의 스님들과 함께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한편 진각 국사는 전남 화순출신으로 지눌 스님을 이어 수선사(현재 송광사) 제2세로 간화선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는 <선문염송집>, <심요(心要)>,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금강경전(金剛經傳)>, <선문강요(金剛經要)>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39주기 다례재

계명학원 설립, 문맹퇴치운동 펼쳐... 150명 운집해 추모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4월 16일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 등 문도스님과 불자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안대종사 열반 39주기를 맞아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한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은 “스님이 열반하신 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열심히 수

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해안 스님은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통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한편, 해안 스님을 따르던 재가불자 모임인 불교전동회는 4월 10~16일까지 7일간 용맹정진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월 16일 부안 내소사에서 열린 해안 스님 다례재에는 불자 150여 명이 운집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첫번째 졸업생 배출

성각·진일 스님 졸업... 팔리어 교육 진행, 2013년 11명 입학

2011년 개원한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원장 재연)이 첫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운사 승가대학원은 지난 4월 7일 선운사 만세루에서 선운사 사부대중과 학인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졸업식을 봉행했다. 팔리어 기초문법과 경율론(經律論) 삼장 강의, 호흡을 위주로 한 위파사나 수행 등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성각(화엄사), 진일 스님(해인사)이 이날 졸업했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초기불교와 간화선을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는것보다

보완적 관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초기불교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사 성륜 스님은 “2년 과정을 수학과 나면 팔리어 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이번 학기에도 11명의 스님이 입학해 다른 사찰보다 승가대학원 입학생이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이례적으로 섹스폰 연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승가대학원 졸업식에서 밝게 웃는 졸업자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

임제불교 조계종 창종 6주년 기념법회

임제불교 조계종(종정 지암)이 창종 6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임제불교 조계종은 4월 14일 경남 하동 미륵정사(주지 자은)에서 창종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암 스님, 보현 스님(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범민 스님(한국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한국생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한국불교 태고종 총회회장)을 비롯해 임제불교 조계종 소임자와 조유행 하동군수,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지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큰 뜻을 알아, 불교정토 건설을 위한 종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기념법회에는 임제불교 조계종 총신도회



장인 나용수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미륵정사 신도대표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 이후 미륵정사에서는 지난 30년간 법화경 사경과 간경기도를 할 주지 자은 스님의 기도 회향식도 봉행됐다. 이날 자은 스님은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를 전하며, 범공양으로 <법화경>을 참가자들에게 보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치유 강좌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마음치유를 위한 활동이 종교계를 넘어 교육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범선)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4월 12일 대웅전에서 마음치유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불자와 신도, 지역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마음치유협회 장인 마가 스님은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 기독교 등 지역의 각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마음치유를 위한 활동이 종교계를 넘어 교육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범선)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4월 12일 대웅전에서 마음치유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불자와 신도, 지역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마음치유협회 장인 마가 스님은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 기독교 등 지역의 각 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